

상속재산파산 시 고인의 퇴직급여



박 규 익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자산을 초과해 빚을 지고 있다가 사망한 고인의 가족들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택하게 된다. 한정승인을 택한 상속인은 고인의 재산범위 내에서 고인의 채권자들에게 빚을 변제할 책임을 진다. 채권자들이 다수이거나, 고인의 재산내역이 복잡한 경우 또는 처분이 쉽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해 법원 관리 아래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대신 고인의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배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고인이 가지고 있던 퇴직연금채권은 어떨까? 단순히 생각한다면 퇴직연금채권 또한 급여와 같은 성질을 가지므로 압류금지재산에 포함되고,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으니

채권자들이 퇴직연금채권을 배분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아니다.

법원은 ‘상속재산파산’의 채무자는 ‘고인’이 아니라 ‘상속재산’ 그 자체인 것으로 보고 있다. 관념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상속재산파산절차는 ‘채무초과 상태인 상속재산 자체’를 엄격한 절차에서 공평하게 청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인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진행할 때 적용하는 채무자회생법의 규정들이 상속재산파산절차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고,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정한 규정도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상속재산파산 시 고인의 퇴직연금채권은 채권자들이 무조건적으로 전부 배해가면 되는 것일까? 그것도 아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규정 자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려는 사회적, 정책적 요정에 근거한 압류금지재산의 취지가 참작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퇴직연금채권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수입을 통해 가족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가 되도록 하려는 사회적, 정책적 고려 하에 압류금지재산으로 분류된 것이므로, 이런 취지를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고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상속재산파산절차에 접어들었다 하더라도 퇴직연금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자들이 파산절차에서 배분해줄 것을 요구할 수 없고, 고인의 상속인은 퇴직연금채권에 대한 권리를 그대로 행사할 수 있다. 물론 이런 결과가 채권자들 기타 이해관계인들에게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결과를 발생시킨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달리 판단될 여지도 있다. 다만 법원이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는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채무자회생법 규정의 적용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압류금지재산 중 어떤 항목들이 파산재단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문가들에 의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법무법인 바른

무빙뱅크, 점포를 대신할 순 없다



기지 수집
안 승 진 (금융부)

명절마다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 있다. 가족에게 건넨 돈을 뺏겼한 신권으로 바꾸기 위해 은행을 찾는 어르신들의 모습이다. 코로나19 이후로 디지털금융이 보급되면서 현금의 필요성이 줄었지만, 명절 전후 은행의 풍경은 여전하다.

신권에 대한 수요가 분명한 만큼 각 은행은 명절 기간이면 전국 각지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무빙뱅크’를 운영한다. 이동식 자동입출금기(ATM)가 다수 탑재된 ‘무빙뱅크(이동식 점포)’는 연휴 동안 문을 닫는 은행을 대신해 현금 입·출금, 신권 교환 등 간단한 업무를 도맡는다.

‘이동식 점포’는 국내 주요 은행이 지난 2010년대에 경쟁적으로 도입했다. 이동식

점포는 지역 대학이나 지역 축제, 관광지 등에서 금융 편의를 제공한다. 5일장이나 산간지역 등 수요가 불충분해 점포나 출장소를 운영하기 어려운 곳에서도 무빙뱅크가 활용된다.

이동식 점포는 지역적 특성이나 일시적 수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한계도 명확하다. 차량을 개조한 만큼 업무 규모에 한계가 있고, 직원이 상주하지 않아 입·출금 이외의 업무도 진행이 어렵다. 문제는 국내 은행들이 이동식 점포를 점포 폐쇄의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은행들은 비대면 금융 보급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금융 수요 감소에 따라 비용 효율화를 위해 점포 폐쇄를 가속하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말 전국에 5654개였던 은행 지점은 올해 2분기 말에는 4591개까지 줄었다. 5년 반 만에 1000곳이 넘는 은행 점포가 사라졌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3년부터

는 점포 폐쇄 시 주민 의견 청취 등을 거치도록 했지만, 인근 영업점 간 통합 등 여러 예외조항을 앞세운 점포 폐쇄는 계속됐다.

은행들은 점포 폐쇄의 대안으로 이동식 점포의 활용, 계좌 개설 및 카드 발급이 가능한 고성능 ATM 도입, 고령자를 위한 모바일 Banking 교육 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고성능 ATM에서는 여전히 대출이나 보험 등 업무는 불가하고, 모바일 Banking 교육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라다. 은행 점포의 빈 자리는 상호금융을 비롯한 제2금융권이 대신할 수밖에 없고, 지역 내 금융취약계층은 금융 서비스에 더 비싼 비용을 치르게 된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유명무실한 기존의 점포 폐쇄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더 나은 대안이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 /asj1231@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0월 13일 (음 8월 22일)

http://www.saju4000.com



취

36년생 집안 분위기를 바꿔보는 것이 좋겠다. 48년생 일시적 감정이 상대의 오해를 산다. 60년생 세상은 끝이 없는 넓은 바다. 72년생 돈은 있으나 기술이 다양하여 대우받던 날들. 84년생 망설임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소

37년생 익숙한 일도 가볍게 보지 말자. 49년생 하늘이 푸르니 마음이 상쾌하고 나아갈 길도 보인다. 61년생 돈에 큰 기대는 하지 말 것. 73년생 잊고 살다 보니 낙원이 따로 없다. 85년생 병이 왔으나 약도 주어지지 실망은 금물.



호랑이

38년생 지혜는 부족하나 근면 성실로 극복한다. 50년생 한가지로 밀고 나가라. 62년생 세상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 수 없다. 74년생 돈 벌려면 기술로서 능력을 키워며 도전. 86년생 자식이 시험이 목전이라면 관음 기도를 해볼 것.



토끼

39년생 결실이 보일 때 강하게 밀고 나가자. 51년생 문서나 계약을 꼼꼼하게 살펴라. 63년생 지나치게 강하면 부러지게 마련 생각해보라. 75년생 연인에게 선심 남발하다 지출 많아진다. 87년생 나를 이해해 주는 배우자가 있어 감사.



용

40년생 산행에서 가던 길 벗어난 행동으로 곤경에 처한다. 52년생 남의 험담에 끼여 들지 말고 조용히 하자. 64년생 자신을 알면 흉물 것도 없다. 76년생 마음은 언제나 변할 수 있으니. 88년생 남이 칭찬을 해도 겸손한 태도를 유지.



뱀

41년생 사람을 가리지 말고 만나야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53년생 가고 싶던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자. 65년생 운전 시에 양보하도록. 77년생 운명 판단적인 가치를 어디에 둘지가. 89년생 항상 중용의 도를 지키는 것이.



말

42년생 작은 일도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자. 54년생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솔직하게. 66년생 뜻이 있다면 날이 새기 전에 일어나 공부하라. 78년생 아침부터 바쁘지만, 실절도 많다. 90년생 건강히 오래 산다는 것은 오복의 첫째 줄.



양

43년생 혼자서 하는 직업으로 스트레스가 없이 즐겁다. 55년생 결모양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67년생 여행을 조심하고 음주를 주의하도록. 79년생 기술에 하나를 배워두면 셋을 알게 되니 기쁘다. 91년생 긍정은 인생길을 반전시킨.



원숭이

44년생 금전 문제로 증여를 상의한다. 56년생 이상에 너무 조바심하지 말자. 68년생 공연한 헛소문에 신경 쓰지 말고 내려놓아라. 80년생 상대 연인에게 애정과 관심을 갈구하면서 부담을 주지 마라. 92년생 갈수록 운세가 향상된다.



닭

45년생 노력하니 성과도 다르다. 57년생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 가도 거칠 것이 없다. 69년생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지 못한다. 81년생 내 행복은 세상과 동떨어진 별천지가 아니다. 93년생 보기 싫은 사람도 아쉬운 법이 있는 법



개

46년생 유혹이 많은 날이니 부디 자중자애하길. 58년생 개나리 진달래가 만발하니 내 마음도 봄이다. 70년생 매수에 조금해하지 말아라. 82년생 젊은 날 시간을 여윌 값으로 환산할 수 있겠는가. 94년생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



돼지

47년생 지인의 불행을 방관하지 않는 것이 상식. 59년생 상식 밖의 일이었으나 실적에는 도움. 71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을 욕심내지 마라. 83년생 재원의 기초를 만들어가는 계획을. 95년생 각자의 권리가 향상되어가니 격세지감 아니겠는가.

김상회의四季

기도가 필요해

사는 일에 장애가 많고 자주 걸리는 일이 있다면 테마 기도는 필수다. 만사는 일체유심조이기에 필자가 주석하고 있는 월광사는 규모도 아담하고 신도 수도 적지만 매달 첫 번째 일요일이 법회일이면서 기도일이다.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사찰에 갈 수 없는 상황들이고 따라서 필자가 주석하고 있는 작은 월광사에서는 법회일 적에 맞춰 각자 발원하는 바를 기도 제목으로 올리고 마음을 모은다. 근심사가 있다면 전날이라도 기도 제목을 마음속에 담아, 자기 전 삼배라도 정성껏 올리고 다음 날 월광사에 올 것을 주문한다. 간화선을 주요한 수행가풍으로 삼는 우리나라 불교계에서는 수행을 통해 마음이 어느 차원 이상 올라가게 되면 이러한 기도 발원을 하지 않아도 만사로부터 번뇌가 열여지고 우주의 선한 기운은 자연스럽게 함께 하게 되니 수행을 강조한다.

중생사는 석가모니가 간파하셨듯 본질이 고(苦)이고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사바세계로서 오탁악세(五濁惡世)이므로 우선은 물에 빠진 사람은 구해내는 것이 우선이기에 수행심보다는 숨 돌리는 것이 우선이다. 배고프고 추위에 떠는 데 수행부터 하라고 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음력 초하루, 초여드레와 보름 등등의 날들에 관음재일, 약사재일 하면서 불보살님들의 이름이 붙은 기도 재일이 있다. 모든 불보살님이 공통적인 가피의 힘이 있지만, 문제의 종류에 따라 속성가피를 구하면 도움이 된다. 변호사들이 공인된 법적 능력과 자격을 갖추었으나 각자 전문성이 뛰어난 해결능력을 가진 분야가 있듯이 말이다. 그러니 어렵고 답답한 일이 있다면 기도할 일이다. 마음이 편해지면 문제 해결의 길이 보이고 일이 편해진다. 욕심을 내려놓고 결과에 순응하는 마음으로, 진인사대천명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발원할 뿐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768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872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